

# 고난 중에 부를 노래

성경 예레미야애가 3:19-39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휼을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실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고난 중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은혜의 찬양 98장)

- 1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 2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 3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후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이라 성실하신 주님



### 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 말씀 읽기 예레미야애가 3:19-39

-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 22 여호와와 인자와 공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 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멩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 29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덮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 31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공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 3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 35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 38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 본문 배경

예레미야애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을 애도하는 시를 모은 책입니다. 애가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에카'라는 단어로,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성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며 공동체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을 160번 이상 언급하지만, 예레미야애가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백성의 죄에 있음을 알려 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시인은 심판에 대한 애도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공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

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란 믿음을 노래합니다(애 3:22~24).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죄를 돌아보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 말씀 관찰

#### 1 고난을 만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

답 고난 중에 소망을 품습니다.

해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앞서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19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은 어떤 고통 중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23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 2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25절)

답 여호와를 선하십니다.

해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25절).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와 같은 생각이 악화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이 확실해!'라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져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 말씀 적용

1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 말씀 암송

## 1-1 이것들이아침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작곡 송세라

♩ = 68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 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 다 예레미야애가 삼십삼절 말씀 아멘



### 가정에배 기도문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 안에서 잠잠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